

장흥 장평~화순 이양 지방도 노폭 좁고 울퉁불퉁 '위험천만'

주민들 확·포장 건의 불구 전남도 외면

장흥지역 일부 지방도가 노폭이 좁은데다 시멘트로 포장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 장평에서 화순군 이양을 연결하는 지방도 843호선의 경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노폭이 비좁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대형 교통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총 연장 13.2km에 달하는 이 도로는 지난 2003년 지방도로 승격했으나 장평면 일대 6km 구간은 군데 군데 시멘트로 포장돼 있으며 일부 산악구간은 노폭이 3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를 장

흥~화순간 지방도 가운데 가장 거리가 짧아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평면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확·포장을 건의해 왔으나 관리청인 전남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확·포장 사업을 시행한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이름만 지방도일뿐 실상은 임도나 농어촌도로보다 나을 것

이 없다"며 "최악의 도로 여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장흥지역을 통과하는 8개 지방도 가운데 장흥~영암 간 835호선과 장평~보성간 836호선, 장흥관산~강진 칠량간 827호선, 장흥장평동~화순 이양간 839호선 등 4개 노선은 확·포장 사업이 끝났으며 843호선은 제외한 나머지 3개 노선의 확·포장율도 70%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가을정취 물씬

장성면 주변에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농촌공사가 조성한 장성면 코스모스 단지는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고재민기자 jggo@

민속마을 기념품이 중국산이라니...

순천 낙안읍성 판매 상가 대부분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팔리는 기념품 중 중국산이 많아 전남을 대표하는 민속마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수백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낙안 민속마을 일대 상가에는 중국산 모자와 우산 등을 판매하고 있다.

관광객 한모(48·여·서울시)씨는 "전통민속마을 방문 기념으로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수입개방으로 중국산이 국내에서 널리 판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많이 팔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상점에서 중국산 상품을 팔고 있어 민속마을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또 낙안읍성민속마을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장터 음식점의 질이 떨어지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음식점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낙안민속마을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제 14회 낙도문화큰잔치가 열린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화순 만연산 산림욕장 조성

화순군이 화순읍 동구리 만연산 일대 12ha에 사업비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내년 초까지 산림욕장을 조성한다.

산림욕장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설치되며 맥문동 3만 8천그루를 비롯해 꽃무릇 등 야생화 9종 8만여 그루가 심어져 불거리와 자연화습장으로 활용된다. 또 주변 등산로와 연계해 산책로 및 자연탐방로도 설치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산강문화축제' 열린다

24일부터 5일간 나주 금성관일대서

나주목사 부임행사 등 볼거리 풍성

2천년의 시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2007 영산강 문화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나주 금성관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영산강문화축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최초의 영산강유역 고대국가인 마한인들의 추수감사축제를 재연한 '마한 소도제'와 나주목사 부임행사, 왕건·장화왕후 혼례놀이 한마당, 나주목사 모의재판 등

11개 기획행사가 타 축제와 차별화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나주 천연염색패션쇼와 백호

대회도 열린다.

또한 고전영상 입고 생활하기, 곤장 맛기, 감옥체험과 짚풀공예, 즉석 대장간, 떡메치기 등도 농칠수 있는 문화·농업 체험행사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이재홍 문화관광과장은 "알차고 의미 있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역사문화도시 나주를 찾아 2천년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문화관광해설사 함평에 모인다

'제 2회 생태·문화관광 해설 전국 경연대회'

'나비의 고장' 함평에서 전국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입담과 깊이 있는 해설로 기량을 겨룬다.

함평군은 오는 11월 1일 자연생태공원에서 '제 2회 생태·문화관광 해설 전국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참가 자격은 각 지역에서 1년 이상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해 예선 5분, 본선 10분 이내로 발표하면 된다.

함평군은 화계 및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모두 9팀에 상장과 상금을 지급할 계획

이다. 이 대회는 함평군이 주최하고 동신대학교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이 주관하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남도가 후원한다.

참가 신청은 동신대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 홈페이지(nuri.dsu.ac.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함평군 문화관광과(061-320-3364), 동신대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061-330-3675)으로 오는 2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함평군은 이번 경연대회가 관광 함평을 널리 알리고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무사고 1천일 달성

구례우체국(국장 이영봉)이 지난 15일 무사고 1천일을 달성했다. 구례우체국은 이날 신규 보급된 이륜차 기원제를 지내고 구례읍내를 돌며 무사고를 기원하는 퍼레이드를 벌였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농업박람회 무료 셔틀버스

'제 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

숭원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 기간에 45인승 대형버스 3대를 셔틀버스로 운행한다.

셔틀버스 2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광주시 남구 주월동 동성중학교~농업 박람회장을 왕복한다. /송기동기자 song@

'화순발전지문위' 출범

화순군이 최근 군정의 싱크 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할 '화순발전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화순발전 정책 자문위는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언론인, 농민, 예술인 등 8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진철 박사(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가 위촉됐다.

자문위는 투자유치, 농촌개발, 사회복지, 문화관광·교육, 고려인상 시배지 복원 등 5개 전문 위원회를 두고 실무부서의 자문 요구에 대처하게 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세 일 글

"변화와 활력있는 지역농협 육성"

김 광 선 고흥 녹동농협 조합장



"변화와 활력을 통해 새로운 녹동농협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신임 김광선(59) 녹동농협 조합장은 "32년간 농협에 근무하며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고흥 녹동 출신인 김 조합장은 전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

며 녹동·도덕·봉래·풍양 조합상무와 녹동·접암·팔영·고흥농협에서 전무 등을 지냈다.

가족은 부인 이광래(56)씨와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등산. /고흥=주각종기자 gju@

Kwangju Ilbo



품격, 신뢰, 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켜온 증인

광주일보가 창간한 이래 70여 년간
한국 근현대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광주일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신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광주일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정신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광주일보사 (주) 광주일보사 100-100 광주광역시 남구 남산로 100-100